

서 명 서

“Here I am, 우리가 국회에 갔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추구를 위한 오프라인 정치행동

Here I am,

십대여성인권센터는 성매수 범죄 피해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과 ‘대상아동청소년’으로 구분하고 있는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개정을 위한 서명 활동을 2017.12.19. ~ 2018.01.21.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서명에 참여한 참가자들의 의견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님들께 전달 드립니다.

연번	닉네임	이메일	한마디
1			개정을 촉구합니다.
2			아동 청소년 성매매 피해 청소년들이 아닌 더러운 범죄자들을 더욱 강력한 처벌과 철저한 단속으로 막아주세요!
3			강력한 법안을 촉구합니다
4			꼭 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			당연한게 아니었다는 것에 큰 충격을 받았다. 미성년자인 나는 이 나라가 무섭다.
6			
7			
8			법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인식 또한 피해자를 피해자로 보지 않고 잘못을 그들에게 돌립니다. 약자의 입장에 서서 그들을 보호해야 할 법과 사회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법의 개정으로 법이 피해자를 피해자로 인정하고, 이를 통해 사람들의 인식 또한 바뀌기를 바랍니다.
9			
10			피해자를 피해자로 인정하라!!!
11			
12			#피해자를 피해자로
13			
14			술먹었다고 감형 이런거 하지말고 어린아이를 상대로 한 범죄는 더 엄격히 처벌해야 합니다
15			
16			피해자를 피해자로 인정하는 아청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17			
18			청소년이 미래라면서 법의 사각지대에 놓지 말아주세요
19			법을 개정해주세요
20			개정해주세요
21			성매매는 불법입니다.
22			
23			어린이들이 두번피해자가 되지않게도와주세요
24			간절히 바랍니다
25			성적 판타지는 개뿔.여자나 남자를 떠나서 어디 미성년자를 건드리나
26			아청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27			함께 행복한 사회를 위해 개정이 필요합니다.
28			#피해자를 피해자로
29			어린이피해자를더러운가해자로부터구해주세요.
30			나는 아청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성매매 아동 청소년을 피해아동으로 규정하고 나라가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고 가해자를 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